

不法에는 강력한 공권력 행사 당연

- 폭주족까지 경찰서에서 난동 부리는 현실 안타까워 -

—— 최 중 락 (에스원 고문)



경찰에 40년 간 몸담았던 최 중 락은 최근 '폭주족이 경찰서를 공격했다'는 뉴스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은 최근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수원시내를 휘저으며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던 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이유로 '갑 없는' 10대 폭주족들이 떼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서까지 쫓아가 순찰차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이들은 마침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교통순찰차를 빙 둘러싸고 안에 탄 경찰관 2명에게 "왜 우리 친구를 잡아가셨냐"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 한편, 순찰차를 발로 차고 심지어 오토바이로 순찰차에 충격을 가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들 중 7명을 검거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나머지 18명의 뒤를 쫓고 있다.

이번 사건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모방심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영화의 한 장면을 모방한 것으로 보아서 너그럽이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회 전반의 공권력 경시풍조가 그대로 반영된 상징적 사건이라 하겠다.

어찌 공권력이 경시될 수 있단 말인가?

공권력 유지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최소의 조건이다.

오늘 경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데모를 하다 불법시위대가 다쳐도 경찰의 책임이고, 휴가 나간 전경이 개인적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소속경찰 서장 직위가 해체되고, 심지어 경찰서장이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쫓겨가야 되고, 불법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경찰정장이 옷을 벗어야만 했다.

공권력은 경찰이 스스로 세워야 한다. 경찰이 불법세력에 양보를 한다는 것은 집안에 침입한 강도에게 집안을 양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말인가? 선진국처럼 불법시위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서라도 공권력을 지켜야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를 해야만 한다.

경찰서장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닌 일로 옷을 벗지 말고, 불법시위대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따라 총기를 발사해서 법을 지키다가 실사 명에롭게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공권력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경찰을 두고 누구도 감히 손가락질은 못할 것이다. 경찰이 이렇게 대처한다면 공권력을 누구도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우리나라 격동기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일해 오면서 공권력이 경시되었을 때 국가가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체험했기에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낀다.

공권력은 경찰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

경찰관들은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공권력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경찰관이 참된 경찰관이며 역사는 이런 경찰에 대해 박수를 보낼 것이다.

경우장학기금 모금

경우장학회에서는 장학기금 20억원 조성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원님과 독지가의 후원에 힘입어 많은 기금을 확충하여 매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립된 자본금의 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7년도 (제30기) 장학생을 위하여 뜻있는 독지가의 적극적인 기탁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액 제한없음)

정관에 의한 예우로서 5,000만원 기탁자는 1명, 1억원 기탁자는 3명의 장학생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수혜를 드립니다.

(장학생 대상은 전·현직경찰관 자녀와 기탁자가 추천한 일반 학생)

재단법인 **경우장학회 이사장**

名士칼럼



서 경 석

(서울 조신죽교회 목사)

요즈음 진보세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 386세대 전문가집단의 80%가 진보개혁세력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진보언론은 이렇게 된 이유를 진보세력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더 근본적인 데 있다.

4년전 「미선이 호순이 사건」은 한미관계가 어긋나는 계기가 된 중요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파가 건강한 한미관계정립의 수준을 넘어서서 격렬한 반미데모로 치달게 되면서 한미관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때 만일 진보적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반미"로 가는 것은 나라이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더라면, 그래서 합리적 진보세력과 친북 좌파세력이 서로 분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되었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을 것

왜 진보진영이 위기에 처했는가?

- 합리적 진보세력은 친북좌파와의 관계를 끊어야 -

이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반대로 친북좌파세력과 결탁하는 길을 선택했다. 아마도 인원동원능력이 부족한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좌파의 인원동원 능력과 결합해야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다. 이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진보진영은 그 대가로 독자노선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 작년 맥아더동상 철거시도 때도 마찬가지다. 친북좌파들이 유엔군 참전 때문에 (공산)통일이 좌절되었다며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진보진영은 이에 동조할지언정 끝까지 이를 비판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도 끝내 이를 비난하는 공식성명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前대통령이 친북좌파와 선을 긋지 않은 것은 열린우리당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정권귀이든 사회세력이든 우리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점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보수든 진보든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보는 친북좌파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정부여당도 같은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좌파정부는 억울한 비난을 들어야 했고 또 지난 5.31선거에서 참패해야 했다. 친북좌파세력이 소수라면 이들과의 단절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력이 너무 커져서 이들과 단절하려면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다보니 열린우리당이나 진보세력이 이들과 단절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설자리가 좁아지게 되었다. 왜 진보진영이 위기에 봉착했는가? 바로 이 친북좌파의 탓 때문이다. 이 탓에 걸리면 합리적으로 선진화의 길을 제시하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과격하게 비쳐지는 일, 표 잃는 일만 하게 된다.

그리고 친북좌파 세력이 또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반열린우리당' 대오에 서도록 내몰게 된다. 왜 우리사회가 보수화하는 것으로 비쳐지는가? 그 이유 역시 국가안보를 훼손시켜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친북좌파들을 이대로 놔두고서는 나라의 앞날이 없다는 인식을 중도세력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판단은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옳은 생각이다. 합리적 진보세력도 우리사회에 바르게 착근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낡은 친북좌파세력과의 一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는 반복하는가? 이러한 이념적 상황은 80년대 말과 너무도 흡사하다. 당시 재야세력은 변혁론이라는 뜻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미국과 노태우는 물러가라는 말만 외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중간층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개량주의라고 그토록 매도했던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

진보진영이 위기의 실체를 바르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은 실패파악에 실패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진보세력은 친북좌파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강경하게 북한을 성토하고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 진보세력의 명성을 추구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초 소고(伐草小考)

- 추석명절 벌초는 우리민족 고유의 숭조(崇祖) 정신에서 비롯되어 -



이 태 기
(법학박사 동호회)

숭조정신(崇祖精神)에서 비롯된다.

나는 지난 9월 중순 벌초를 하러 시골고향을 찾았다. 고향 친척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동생들과 조카들 열댓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벌초에 앞서 제일 윗분인 수원 형님께서 예초기 사용법 등 벌초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과 함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묘소를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벌초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이른바 벌초작전 명령이다. 작전 명령을 받은 宗家 사람들은 24가나 되는 봉분의 풀을 깎기 위해 예초기, 낫, 갈퀴, 톱, 에프킬라 등으로 무장하고 각기 맡은 지역으로 떠났다.

해마다 추석에 다가오면, 후손들이 조상의 묘소에 가서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주는 작업을 한다. 벌초를 하는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옛날엔 명당을 찾아서 묘를 쓰기 때문에 묘소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묘소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다. 해마다 벌초를 하러 가지만, 갈 때 마다 묘소를 쉽게 찾지 못해 해를 때가 많다. 우거진 잡초와 흙덩이를 쳐 내고 길을 새로 만들면서 간다. 마치 빨치산 붉은 병사처럼 산을 타면서 합들게 묘소를 옮기다 보면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다.

그런 고생 끝에 가까스로 찾은 묘소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휩싸여 산과 봉분이 언뜻 구별이 되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집안 벌초꾼은 예초기로 벌초를 시작 하면서 "할배요, 스포츠 가리랑 헤드릴까요? 치켜 깎아 드릴까요? 아니면 백구를 해 드릴까요? 연세도 많으신데 고만 백구를 치시지요."하면서 봉분을 하얗게 베껴 내리는 재미있게 웃기는 조카도 있다.

드디어 여기저기에서 본격적인 벌초작전이 전개되면 고요하고 엄숙하던 산이 모처럼 적막을 깨고 활기 넘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어느새 벌초가 완료된 묘소를 보면서 어린 시절, 이발소에서 길게 자란 머리를 까까머리로 이발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듯이 지하에 갇힌 할아버지

께서도 기분이 좋으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은 흐뭇해진다.

옛날 우리네 부모님들은 이른 봄 춘궁기에 먹을 것이 모자랄 때면 산을 찾던 생각이 난다. 그때는 산으로 가아만 어린 산나물도, ছ도 썬 수 있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에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기떡도 만들어 먹었고, 뿌리도 캐고 나무 잎사귀도 뜯어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며 살던 시절도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힘든 세월을 살았던 우리 가난한 조상님들이 더욱 존경스럽고 애뜻한 정을 가눌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벌초기간을 빼면 산에 찾아 갈 일이 없어진지 오래다. 산에 가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고맙고 황송하지만, 그때의 어려웠던 조상님의 생활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옛날엔 사람들이 팔감과 먹을거리 찾느라고 산을 헤맸기 때문에 온통 벌거벗은 산이었지만 요즘은 녹화사업과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길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산이 수목으로 울창해지면서 우리네 조

상님 묘소도 원시림 속에 묻히게 된다. 일 년만 벌초를 안 해도 묘소를 잃어버릴 지경으로 가파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요즘 어떤 문중들은 해마다 닥쳐오는 벌초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봉분이 많은 문중 일수록 고민은 더 많을 것이다. 물론 벌초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가다 부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벌초를 하지 않을 경우 마음이 개ripp직 하고 조상께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할 자손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흩어져 있던 친척일가 동생, 조카들이 이런 일로 모여서 무공해 음식으로 만든 안주에다 시골 막걸리를 마시면서 덕담과 정담을 갖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즐거움이다.

벌초를 끝낸 문중 사람들은 벌초문제로 간혹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뽀족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다. 어렵더라도 이런 일로 해서 해마다 모여 문중 사람들의 친목도 다지고 조상님의 은덕도 생각하는 年例行事라고 생각을 했으면 한다. 다행히도 요즘 사람들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바뀌어 가는 걸 잘된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벌초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다.

미국보청기



전·현직 경찰관님께

15년 전통

미국보청기

최고급 디지털보청기를 40% 할인해 드립니다.



부시 미국(전) 대통령
모로 미국(전) 대통령
레이건 미국(전) 대통령
이 사용하는 보청기

- ▶ 감음이 전혀 없고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 ▶ 15년 전통의 보청기 전문회사입니다.
- ▶ 매우 작은 소리로 아주 잘 들립니다.
- ▶ A/S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 ▶ 10년 보증서 드림

서울 : 서울시 용구 남대문로3가 25번지 (구,서울시경 맞은편)
전화 : (02)752-2580, 752-2589 핸드폰 : 011-229-0055

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22-1 푸른 B/D 2F
전화 : (032)469-0033 핸드폰 : 011-229-0055